

##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 › 활동기관 : 캄보디아 상무부
- › 자문분야 : 중소기업 지원
- › 자문내용 : 무역 진흥
- › 성 명 : 이 동 철



## 일 년 내내 더운 곳의 음식

S형, 잘 지내시지요? 서울은 너무 춥다던데 어떠신지요?

이곳 캄보디아 역시 일기에 변화가 있어 건기로 바뀐 뒤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기후도 3월이 되면 엄청 더운 건기로 바뀌어 5월까지 지속되고 그 후에는 다시 덥고 습한 우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매일 더운 기후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생활상은 어떠한가 하며 사람들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써 볼까 합니다. 깨어나도 큰 온도차를 못 느끼고 늘 습한 공기를 접한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여름 중 열대야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캄보디아에 온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저로서는 잘 모르지만 1년 정도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테지요. 일단 지금까지 느낀 것들 중 식생활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여름(夏)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열음(열매가 열린다. 성숙해진다)의 변형이라고 하지요? 더운 여름에는 각종 열매는 물론 채소 곡식 등 먹거리가 풍성하지요. 캄보디아도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늘 농산품이 풍성합니다. 1년 내내 다양하고 맛있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데, 수분과 함께 충분한 당분을 섭취할 수 있어 과일만으로도 기본적인 열량은 확보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시사철이 분명한 우리나라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추운 겨울과 식량이 생산되지 않는 이른 봄을 대비하여 여유가 있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손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고단하고 어렵고 식량이 부족한 시기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국민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하면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닥치면 그제야 몸을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항상 더운 날씨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귀찮아지니까 미리미리 고민해 준비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것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그들에게는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이슬>의 노랫말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처럼 이곳의 한낮은 그냥 서 있기도 어려운 시련입니다.

이곳 서민들은 시장에 가면 신선한 것을 매일 살 수 있는데 굳이 전기료를 내면서 냉장고에 넣고 먹을 필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냉장고 없던 1960년대 초반까지는 매일 시장에 갔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거의 매일 어머니와 화원시장(현재 대한극장 건너편 진양상가가 시작하는 곳부터 PJ호텔 부근까지)에 가서 식재료를 사러 갔고 돌아올 때는 빵이나 호떡 하나에 어린이 짐꾼을 차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인구 140만 정도의 프놈펜에 슈퍼마켓도 여럿 있지만 아직도 재래시장이 10곳도 넘고, 대부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슈퍼마켓은 외국인이나 부유한 캄보디아인이 이용).

가뜩이나 온도가 높고 습한데 좁은 집안에서 조리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

니다. 가능하면 열기를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집에서 조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대부분 집 바깥에서 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 조리하던 풍경을 기억해 보면 주된 조리는 아궁이에서 하고 별도로 필요한 것은 바깥에서 풍로를 두고 음식을 만들었지요. 특히 여름에는 부엌에서 하지 않고 거의 바깥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캄보디아라고 추측하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민용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파는 음식점을 보면 석쇠나 풍로와 같이 열기를 쏟아 내는 기구는 모두 외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운 열기를 배출하기 위함이었지요.

식탁 역시 건물 안보다는 외부에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급 식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 식당의 경우 식당 앞 인도와 도로를 식탁 장소로 사용합니다. 더욱이 장례나 생일 기념일, 결혼식의 경우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의 반을 텐트 같은 것으로 점유하기도 합니다(기쁜 날에는 분홍색 천을, 슬픈 날에는 흰 천을 사용). 그리고 케이터링(Catering)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리를 대신해 줍니다. 음악도 확성기를 사용하여 크게 틀어 놓습니다. 이웃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만 이웃들 역시 그들의 경조사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 국도의 절반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캄보디아에는 아직 엄밀한 의미의 고속 도로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이 생겨 예정된 시간보다 늦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만 공연히 공공 의식이 부족하네 뭐하네 하면서 툭툭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식은 건기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합니다. 노인들도 자식의 어려움을 아는지 건기에 귀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인은 대개 점심과 저녁을 매식으로 때웁니다(아침도 매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기관이나 상점은 업무를 8시부터 시작하지만, 학교나 공장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점심시간은 11:00부터, 퇴근은 16:30부터 시작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길거리는 음식 먹는 장소로 변합니다. 가난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소량씩 자주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녁이 지나 밤 10시가 넘어가면 야식을 파는 호객꾼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식당을 제외하고 길거리 매식의 어두운 면은 식기가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 현지 사람들은 아직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료는 풍부합니다. 농산물도 많지만 민물고기도 많습니다. 남쪽 해안 지방에서는 생선과 오징어, 게 등을 즐기는데, 이 중 게가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육류는 일반적으로 오리를 즐기지요. 돼지고기를 자급하고는 있지만 베트남과 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워낙 많아 돼지 농가들의 어려움을 커지고 있습니다.

아참, 제가 글을 쓰는 대상이 시골이 아니라 프놈펜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눈에 프놈펜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최빈국 모습이 아닙니다. 특하면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관광지에는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 관광객이 넘쳐 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 전문점이 엄청 많아 서울의 변화가와 흡사한 분위기까지 연출됩니다.

다음에는 의(衣)와 주(住)에 쓸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프놈펜에서 이동철 드림

## 일 년 내내 더운 곳의 옷과 집

S형, 잘 지내시지요? 벌써 이곳 생활 9개월째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더운 건기의 중심입니다. 이곳의 4월 15일은 태양이 정중앙에 떠오르는 날로, 그동안 북쪽으로 생기던 그림자가 남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날을 새해 명절로 지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해(태양)이기 때문에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덥고 전기 소요도 많은 시기입니다. 한낮 더위는 36~38도로 지방은 44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 사이에 정전이 빈

번한데, 그래서 모든 생산 시설과 대부분의 상점들은 별도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캄보디아의 전기는 소비량의 50% 정도를 생산, 50%는 수입에 의존). 이러한 문제는 모든 생산품,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봉제 제품의 생산 원가 상승에 반영되기도 하지요.

옷은 짧은 소매 옷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아주 더운 기간에도 긴 팔을 많이 입습니다. 우리는 이곳 계절을 건기와 우기로 구분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영어로 Hot Season과 Very Hot Season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건기 중 그나마 시원한 기간인 12월부터 1월의 아침인 경우에는 점퍼 등 두꺼운 옷을 입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간혹 잠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거의 교복을 입는데, 상의는 흰색이나 청색, 바지는 검정색을 입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라도 가능하면 교통수단을 타고 다닙니다. 캄보디아에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취직한 젊은이들은 가장 먼저 오토바이를 사려고 합니다. 가난한 봉급자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대출을 하는 은행도 많습니다. 현지인은 아주 가까운 거리(300m 안팎)거나 운동을 할 때만 걷고 나머지 경우에는 자전거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더운 시간에 걷는 사람은 대개 승려(꼭 양산을 가지고 다님), 노점상들이고 간혹 햇볕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동참합니다. 그렇게 외국인이 길을 걷고 있으면 간혹 오토바이나 툽툽을 타지 않겠냐고 말을 걸어오기도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니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송 수단은 자전거, 시클로(불어로 cyclo, 바퀴가 세 개인 인력거 형태로 페달을 밟는 사람이 뒤에 서고 손님은 앞에 앉음), 오토바이, 툽툽이(오토바이 뒤로 앉을 수 있는 도구를 연결한 운송 수단), 자동차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토바이가 많은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개 차로는 오토바이가 점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도 제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느린 속도라서 오히려 큰 사고가 없는 편입니다. 교통 법규는 사문화된 듯합니다.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있어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데,

그것 자체를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는 법규를 지키지 않을 거라며 서로 용인 해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전쟁에서 찾기도 하는데, 법규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통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방과 지방을 서로 잇는 국도의 경우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서울과 대전 정도의 거리를 가려고 해도 편도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외국이 건설해 주는 것으로 인식이 굳어지다 보니 유지·보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중고 포함)의 등록 대수가 한 달에 2,000대라고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프놈펜 시내가 운송 도구로 꽉 찰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집의 경우 바닥과 천장 사이의 높이가 보통 4미터 이상인 것 같습니다. 더운 공기를 위로 보내야 밑은 비교적 서늘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진출 초기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천정 높이가 한국보다는 높지만 이곳 기준보다는 낮아 더위를 쉽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분양이나 임대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동남아 지방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집 천장의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천장이 높은 만큼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의 경사는 매우 심합니다. 술이라도 한잔 하면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실내 바닥은 대부분 석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환경 속에 위생과 관리의 편의성 때문이겠지만, 석조 바닥이기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내에서는 꼭 슬리퍼를 신어야 그나마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집들은 대개 1층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둡니다. 4개의 기둥을 세워 그 위에 방을 짓고는 1층 공간은 어디서든 보이도록 해 놓은 것이지요. 이는 지열을 피하기 위함이지만, 그보다는 각종 동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1층 기둥들은 사각형 아니면 6각형으로 만드는데, 현지인들의 말을 빌리면 기둥에 각

이 있어야 뱀이 타고 올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집은 오래 사용한 후 어떻게 개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옆 새로 집을 짓고 현 집은 부신답니다. 제목에서 말 했듯이 사시사철 더운 곳에 사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단순하게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지니지 않고도 행복한, 예를 들어 옷 몇 벌과 슬리퍼 하나만 있어도 이들은 만족하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 욕심이 문제겠지요.

더위 이야기하다가 인간 본성 이야기까지 흐르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프놈펜에서, 이동철 드림

### 프놈펜 51번가 풍경

S형,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서울은 겨울이 다 되었다면서요? 저는 한국의 가을과 겨울이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길 풍경을 글로 그려 드릴까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가 아니라 프놈펜 시내지요. 프놈펜 51번가는 남북 방향 거리인데 'Pasteur St.'라고도 합니다. 이 길은 우리나라 세종로와 같은 큰길의 안쪽에 있습니다. 큰길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다만 폭이 우리나라에 비해 좁지요. 몇 군데는 옛 프랑스 시대의 풍경이 남아 있어 편도 길 가운데를 높이 올리고 길쪽한 정원으로 만들어 길을 나눈 형태도 있습니다(이런 형태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우리나라 테헤란로에도 남아 있었는데 모두 다 길을 넓힌다고 없었지요). 대부분의 길은 2차선으로 중간 중간 둥근 형태의 교차로(불어로 Rond Point)도 있습니다. 관공서가 많고 정부 청사가 있는 큰길은 비교적 정갈합니다. 그러나 그 뒷길, 즉 중간 길부터 작은 길은 우리나라 1950~1960년대의 길과 비슷합니다.



캄보디아의 길을 살피기 전에 알아 뉘야 할 것은 보도 또는 인도가 시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된 가정집 또는 건물주의 소유라는 것인데, 때문에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경우 인도도 같이 손보는 게 보통이고, 관리 역시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청소는 기본입니다. 어느 레스토랑은 연결된 보도를 매일 물청소하고, 어느 세차장은 매일 시멘트로 된 연결 보도를 방바닥 쓸 듯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빗자루 질 정도에 그치지요. 간혹 관리를 안 하는 건물도 있는데 그런 곳 앞 보도는 지저분하고 심지어는 풀이 우거지기도 합니다. 불일이 급한 남자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곤 하지요. 인도의 각 부분의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길 전체로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또 보도블록의 크기, 문양, 형태, 재료 등이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보니 걷는 느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프놈펜에는 톤레사프(Tonle Sap), 바삭(Bassac) 등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흐르고 섬 하나 건너에 메콩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프놈펜의 지면이 강 수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기에 집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할 요량으로 집의 높이를 차도보다 10~15cm 정도 높게 만든다고 합니다.

차도에는 물이 잘 빠지라고 배수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평상시 특히 건기의 배수구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기 때입니다.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대부분의 차도에는 서서히 물이 차오릅니다. 30분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1시간 이상 비가 오면 많은 길들이 물바다가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면과 강 수면의 높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쓰레기들이 하수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빠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노심초사 발을 동동 구르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언제 비가 왔느냐 싶게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생각에서 우리만 아드등 바드등 삶을 어렵게 영위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을 하게 되네요.

보도로만 한 블록 이상을 쭉 걸어가는 모습, 잘 상상되지 않으시지요? 일단 집에서 나와 인도로 걸으며 25cm 정도 올라갔다가 차도에서는 내려가고, 다시 남의 집 영역의 보도가 나오면 오르고 다른 집 문 앞에서는 내려가고, 그 집 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보도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로만 걷기는 무척 불편한 것이지요. 사실 이런 길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높이의 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30cm 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잦은 비에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놈펜 시내에서는 300m 이상 걷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 타고 다니지요. 저는 운동 삼아 1km 정도를 새벽에 걷는데, 그때마다 무언가로 보도에 딱 차 있어 보도로만 걷기가 어렵습니다. 한낮은 더 심하고요. 문제는 저처럼 걷는 사람만 불편할 뿐 걷지 않는 현지 사람들은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귀찮아 가능하면 차도로 걷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오면 차를 피해 옆으로 가거나 보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동이 트면 거리는 각종 교통수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운송 장비를 보면 각종 트럭, 버스(대부분 중형이고 대형은 시외버스 정도), 4000cc급 대형 자동차(부나 권위를 과시하려는 대형 SUV가 많음)부터 모닝이나 아토프와 같은 경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승용차가 등교와 출근을 위해 나타납니다. 또 서민용 툭툭이, 오토바이, 시클로, 자전거 등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러니 아무리 좋은 차도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정체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크게 욕

하거나 신경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머리를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우선이고 알아서 양보를 합니다. 다만 어두울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거니와 아예 전기 없이 운행하는 차도 있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통수단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밤에는 가능하면 차량을 집안에 주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큰 재산이고 정세가 불안한 시절의 도난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 경비원이 있는 일부 경우에는 외부에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점이나 찻집의 경우 매장 안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간대별로 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식당들도 영업 준비를 하지만 가게나 직장 앞에는 음식 노점상도 나타납니다. 바게트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노점상, 내장과 국물로 국밥 비슷한 것을 만드는 노점상, 숙주를 비롯해 각종 야채와 달걀을 볶는 볶음밥 노점상까지... 저마다 다른 음식을 팔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옆에 붙여 놓고 장사하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아마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이겠지요. 어이구, 글을 쓰는 동안에도 식용 바나나를 튀기는 고정형 노점이 장사를 준비하네요.

신문 가판대도 분주합니다. 이들은 가판대용으로 만들어 준 소형 건물에서 기거를 하며 물, 음료, 전화 카드 등도 팝니다. 등교 시간에 학교 담장 앞에는 학생들 준비물을 파는 간이 노점상이 여럿 열리는데, 이들은 늦게까지 장사를 하다가 물건을 학교 안에 맡깁니다. 오후 4~5시가 되면 보도에 저녁 음식점들이 식탁과 의자를 놓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비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양도 빠지지 않지요. 이들은 오후 8시 정도까지 영업을 하는데, 뒷정리까지 마치면 9시를 훌쩍 넘기곤 합니다. 길거리 이발소도 아침 7시면 영업 준비를 하는데 이런 곳은 가격이 1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바쁜 아침이 지나면 보도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인도가 자동차로 꽉 차고 또 오토바이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립 학교도 많아 학교 버스도 차도를 점유하고... 혹자들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아직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 지하 주

차장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물론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면 지하 주차장이 필수 요건이지만, 지표면이 강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프놈펜에서 지하 공간을 만들면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더군요.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차도로 몰리게 됩니다. 노점상, 간이음식점 등. 게다가 차도에는 각종 교통수단이 쏟아져 나옵니다.

걸어 다니는 외국인들은 툽툽과 오토바이 기사에게는 좋은 고객이 됩니다. 보기만 하면 툽툽, 모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지요. 가격은 2~3km당 약 2달러 정도지만, 짐을 실으면 짐을 싣고 내려다 주는 것까지 더해 5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툽툽이나 오토바이 기사 중 상당한 인원이 투잡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교사들도 있다는데, 교사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9월 초등 교사의 초봉이 인상되어 월 80달러가 되었다는 기사를 최근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니 새로운 음식점이나 호텔이 신축되면 툽툽과 오토바이 간에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지난 3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옆에 새로운 호텔이 생겼는데 건물 앞은 물론 건너편까지 10여 대가 몰리더군요. 사무실 앞 주차 공간까지 그들에게 점령(?)당했지만 사무실 정문 관리인도 그들을 막 쫓아 내지는 않습니다. 다들 입장이 같거든요. 그저 높으신 분이 출퇴근할 때 잠시 자리를 좀 비켜 주면 되는 정도입니다.

학교가 파하고 오후 5시부터는 다시 아침에 봤던 큰 차부터 자전거까지 다시 쏟아져 나왔다가 8시가 지나면서 다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량도 뜰해지고 툽툽, 오토바이도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조금 시원해지면 일부 사람들은 길에 평상을 깔고 식구들끼리 음료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람도 생명체인 것이 틀림없나 봅니다. 우기에는 거의 없던 결혼 피로

연, 장례식이 여기저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기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그런지 연세 드신 분들이 떠나시는 일도 이때 주로 생긴다고 하네요. 하여간 집안 대소사로 친척들을 접대한다며 보도를 점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겨울에 몸 조심하시고요.

프놈펜에서 이동철 드림

## 캄보디아의 노동력

잘 지내시지요? 오늘은 이 나라 노동력에 대해 전할까 합니다.

캄보디아 내전이 심했던 1997년에 한국 대사관과 코트라가 진출한 이래 15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간 봉제, 건설, 무역, 금융, 도소매, 관광,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기업이 속속 진출하였으며 2013년 12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 등록된 업체는 77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권유할 때 처음 내세우는 것이 저렴한 노동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캄보디아의 값싼 노동력을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지요. 실제로 한국의 인건비에 비해 캄보디아 임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의 임금 인상 수준이 가파르고 각종 규제가 심해져 중국에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캄보디아는 해외 투자에서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보 만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렴한 노동력 외에도 캄보디아는 선진국이 인정하는 LDC(Least Developed Country) 49개국 중 하나로서 많은 제품의 관세율이 0%이고(우리나라와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EU의 경우에는 LDC에게 EBA(Everything But Arms)라는 정책

(무기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을 수량 제한 없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특혜)을 지원해 주어 선진국 시장에 수출 시 캄보디아는 시장이 확보된 좋은 생산 기지가 될 것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질은 어떨까요? 물론 업종에 따라 상이 하지만 금융권 대출자 봉급이 가장 높고 봉제 공장 노동자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나라 청년의 최고 선망 직장인 금융권 대출자 초임 봉급의 경우 약 200달러 정도인 반면 봉제 공장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교통비 7달러, 개근 수당 10달러를 포함해 고작 97달러에 불과합니다(2015년 필자가 귀국할 시에 최저 임금은 130달러였고, 대출 초임은 300달러 정도 였음). 다만 봉제 공장이라는 특성상 야근과 특근이 비일비재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이보다 더 높으며, 현재 봉제 공장의 실제 지급액은 최저 임금의 약 2배 정도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교육 수준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쳐 비록 대학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보다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관리나 경제계 인사들도 교육의 질이 낮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말 캄보디아 고용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프랑스 석유 화학 기업 Total의 캄보디아 대표는 정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해도 현업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다고 전제하며, 회사 내에 별도 대학 과정을 통해 수학, 물리, 화학 등을 다시 교육한 후 채용을 결정한다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세부터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미나에서 캄보디아의 투자 유치에 담당하는 기관장은 기업도 종업원 훈련에 책임이 있다며 2014년에 투자법 개정 시 동 내용을 삽입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깨어 있는 부



모들은 자녀의 영어 공부에 매달립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오전, 오후, 야간) 여러 전공을 공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과외 공부는 가난한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달 수입이 150달러인 부모들도 30달러 이상을 자녀 과외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캄보디아 국민들은 공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현지 사무직원 채용 시 이력서만으로는 옥석을 가리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믿을 만한 현지인이 채용 대상자를 면담하고 복수 추천을 받아 사업주가 최종 결정하는 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봉제 공장 노동자의 경우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기업주들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표합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직원이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명절 귀향 시에도 공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장 설립하여 처음 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공단 관계자를 이용하여 공장 부근 동네 유지에게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인력 관리는 어느 나라나 다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노동자의 손 기술 수준을 보면 단순한 것을 선호하고, 조금 복잡하고 힘든 것은 피하려 한다 합니다. 이런 점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더운 지역에 태어나 성장한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심한 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투자 업체의 고용주들은 이들



이 게으르고, 느리며, 정확히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다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좀 지나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날씨가 더운 곳에서 생존해

나가는 방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추운 계절이 있어 무엇이던 덜 추운 계절에 준비를 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태어나서부터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난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다 모아 놓은 곳은 없나 봅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하면 어떤 부분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귀국할 때가 되었습니다. 20대 즐겨 들었던 <길>이라는 노래 중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이 길뿐이라고’라는 구절이 문득 생각납니다. 누가 감히 이것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에는 이 가사를 그냥 지나쳤는데 60세 중반에 3년간 타국 생활을 했더니 세상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안 것은 아닌지... 아울러 후진국과 개발 협력을 논의할 경우 우리의 방식, 또는 서구 방식을 후진국에 요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술 한 잔 놓고 못했던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프놈펜에서 이동철 드림



캄보디아  
이동철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 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근무
- 前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 위원장
- WFK NIPA Advisors – 캄보디아 상무부 파견